

함평군, '한국판 뉴딜' 대응 사업 발굴 보고회

VR기반 나비체험 관광플랫폼 구축 등

총 34건 860억여 원 대응전략 사업 발굴

함평군은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익 군수 주재로 '한국판 뉴딜' 대응 사업 보고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따른 부서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군 차원의 연계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

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사회·고용 안전망을 보장하는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부터 정부 뉴딜정책 3대 방향(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정망 강화)을 중심으로 총 34건, 860억여 원의 대응전략 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VR 기반 나

비체험 관광플랫폼 구축 ▲5G·AI 활용 관광플랫폼 구축 ▲축산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보급 ▲생활밀착형 숲 조성 ▲스마트시티 웰린지 사업 ▲시설원에 환경 빅데이터 구축 및 관제센터 운영 ▲스마트 상수도 구축 ▲지능형 ICT타운 조성 ▲실감미디어 기반 언택트 스포테인먼트 플랫폼 구축 등이다.

앞으로 군은 각 사업들이 실제 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사업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예산확보 방안 등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정부가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국비 확보 활동도 적극 전개



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160조 원이 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은 지역의 미래가 달린 돌도 없는 기회"라며, "정부의 세부

사업 계획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번에 발굴한 34개 지역 역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영산강하구 수해 쓰레기 수거에 총력전

무안군은 지난 10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수해쓰레기 수거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수해 쓰레기는 다양한 종류의 생활쓰레기가 혼재된 혼합쓰레기로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부패되면 심한 악취와 2차오염 발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대상구역은 일로읍 구정리 부터 삼향읍 남악리 까지 약 10km 구간이며 쓰레기 양은 약 6,000톤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무안군에서는 중장비를 투입하여 1,200톤을 수거 완료하여 적치하였고, 향후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3일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현장을 방문한 류연기 영산강환경유역청장과 관계자들에게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20억을 요청하였다.

김산 군수는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은 쓰레기가 떠내려와 영산강 하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영산강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귀어 청년에게 왕새우 산지가공시설 지원

"신안 대표수산물 왕새우 유통에 변화 기대"



지난 14일 신안군 압해읍에 완공된 왕새우 산지가공시설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군수 등 지역민 40여명으로 참석인원을 한정, 조촐한 준공식을 가졌다.

왕새우 산지가공시설은 작업동과 냉동냉장시설 2개동 686㎡ 규모로, 보조금 6억원과 자부담 4억원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준공식에 참석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매년 출하시기 마다 반복되는 취약한 왕새우의 유통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업이므로, 산지 가격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와 왕새우 양식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준공한 왕새우 산지가공시설 '바른씨푸드'는 도시에서 직장에 다니던 비금출신 청년이 귀어하여 창업한 회사로 왕새우를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으로 판매로 연 25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산지가공 시설의 왕새우 유통기능 강화를 통한 홍수 출하 방지 및 산지 가격 경쟁력 확보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는 유통기반 확충에 지속적

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안군에서는 2019년부터 김·왕새우·개체굴 학교를 운영하고 각종 귀어귀촌인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통계청 발표에서 2019년 전국에서 2번째로 귀어인 규모가 많은 지역으로 신안군이 발표되는 등 귀어귀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매년 약 4,000톤(전국 생산량의 52%)의 왕새우를 생산하여 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는 7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 8월 현재 1kg당(35미~40미) 2만원 정도에 출하되고 있다.

목포시,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

근대역사관 모티브 홍보부스·다양한 이벤트

목포시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목포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는 '여행,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17개 시·도내 지자체와 관광관련업체가 참여하여 35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별 관광명소 및 레저, 체험 등 다양한 여행정보를 공유했다.

부대프로그램으로 관광업계 담당 대상 컨설팅 및 특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목포시는 근대역사관을 모티브로 홍보 부스와 지붕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평화광장 바다분수 등 목포만의 관광자원과 맛의 도시 목포의 음식 콘텐츠, 문화도시 목포의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 중 여행업계 바이어 미팅에 참여해 시의 여행상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



하며 목포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목포가 4대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 관광인프라를 강화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안심하고 걸 수 있는 관광도시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대불산단 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영암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불산단 내에 사고다발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운전자의 시인성이 높은 플래시 경광등(유도등) 및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며 적극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플래시 경광등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로 커브 구간이나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 등 교통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도로 30개소에 우선 설치한다.

또한 대불산단 특성상 야간에 트랜스포터 및 특수 차량의 운행

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이 높고 휘도 교통안내 표지판을 나뭇로(은행주의) 2개소에 설치하고, 대불로 커브길에는 위험구간 안내표지판 2개소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대불국가산단내를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코자, 향후 영암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산단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후은부대 장병들, 영광군 수해현장 대민지원 총력

후은부대는 지난 7일과 8일 영광군 일대에 발생한 집중호우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후은부대 장병들은 13일부터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군남면, 군서면, 불갑면, 홍농읍, 영산면 지역 36개소의 침수피해 복구작업을 위해 장병 400명을 긴급 투입하여 가옥 정리, 토사 제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대민지원 지원 중인 한 장병은 "대민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